

## 칭화대 기업집단 쑹궈총재 (경향신문 2004.11.15)

칭화대 기업집단 쑹궈총재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08:37

“한국에 들어서는 차이나타운은 한국과 중국이 손을 합쳐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칭화(淸華)대 기업집단의 쑹궈(宋軍·43) 총재(사장)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에 있는 칭화 사이언스파크의 한국 분원이 경기 일산의 차이나타운에 입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칭화대 기업집단은 칭화대 소속 기업 46 개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지주회사 산하에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인 통광(同方)·쯔광(紫光) 등 상장사 6 개사가 있으며,

중국 국민총생산(GNP)의 1%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쑹궈 총재는 지난 12 일 칭화대에서 열린 ‘칭화 사이언스파크·한국 일산 차이나타운 협력 토론회’에서 기자와 만나 “일산의 차이나타운은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차이나타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화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첨단기업들이 입주한 테크노파크 형태로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쑹총재는 “칭화대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칭화 사이언스파크가 해외에 분원을 두는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에 세워지는 칭화 사이언스파크 분원은 양국간 기업 정보와 기술교류 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칭화대 기업집단이 1백 50 억원을 투자해 일산 차이나 타운에 세우는 칭화 사이언스 한국분원은 내년 10 월 착공, 2007 년 본격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협력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한국 일각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국, 양국이 기술 협력을 하면 서로 얻는 점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쑹총재는 한국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며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칭화대 기업집단이 향후 발전을 하려면 외국과의 협력은 물론 외국 기업의 인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1979 년 칭화대 공대에 입학, 84 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98 년 현직에 취임했다.

<베이징 | 흥인표특과원 iphong@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411151808371&code=1003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411151808371&code=100305)